

“육신보시야말로 으뜸 이타행”

4요인 특별

창립1주 생명공양실천본부 본부장 법장 스님

현대사회의 시련은 인간행생불사인 생명공양은 이웃과 삶을 나누는 자비행이요 대승보살행이자 불교적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수행의 모습이다.

종생을 구하기 위해 수없이 육신공양을 해 보셨던 부처님의 모습을 닮고자 「생명공양실천본부」가 출범한지 지난 8일로 어인 1주년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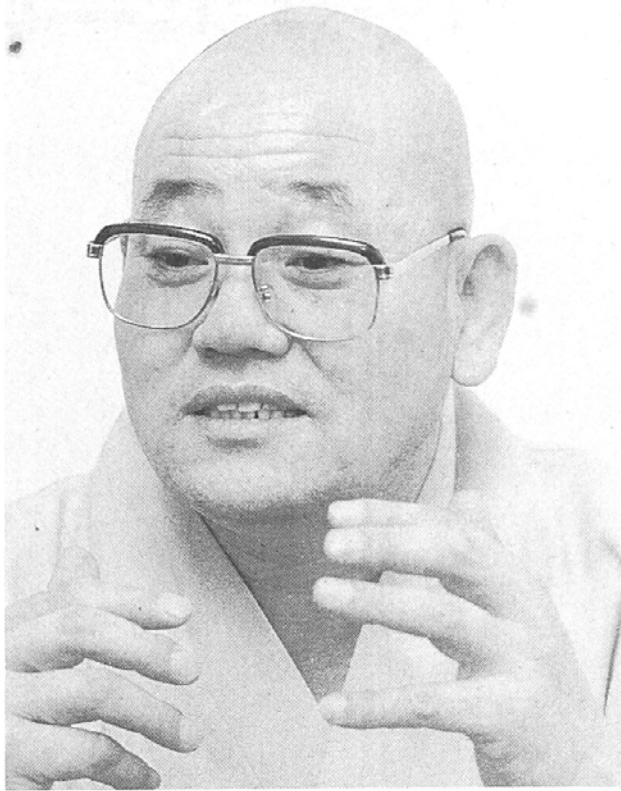
「생명공양실천본부」가 창립되기 이전인 지난해 1월 보사사 안구·장기기증, 사후 시신기증까지 8여 생명공양운동선봉에 선 본부장 법장(法長, 수덕사 주지)스님. 스님은 “지난 1년동안 생명공양운동에 관심을 갖고 기꺼이 동참해 주신 여러 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좀더 많은 관심과 동참으로 생명공양이 범국민적운동으로 확산돼 남을 위한 이타행을 실천하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수행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창

- 1941년 6. 15 충남 서산 생
- 1960년 원남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72년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 조계종 7·8·9·10대 중앙총회의원 역임
- 현재 학교법인 동국학원 감사, 충남 지방경찰청 경승실장, 한·태 불교협회 회장

주었습니다. 또 신장기증을 끝내고는 ‘세상에 진 빛을 조금은 밝힌 것 같다’는 겸손한 모습에서 불자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의욕들이 모여있는 모인만큼 본부장으로서는 부끄러운 점이 많으셨습니다. 본부장을 맡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바쁘기도 했



1천8백여 기증자들 참불자상 보여줘 ‘世界一花’ 정신으로 범국민 운동 전개...타종교와 유대

립1년의 소감을 피력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교계에 장기가증이라는 인식도 안됐고 기증도 거의 없던 때 시작해서 여러가지로 힘드셨을 줄 압니다. 생명공양실천본부의 1년 실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필요하면 써먹어라”

▲안구기증 2명, 신장기증 1명, 시신기증 3명이고 최근 뇌사환자가 3명에게 각각 안구, 심장기증을 했습니다. 현열만도 1080명입니다. 또한 기증을 신청한 건이 1800여건으로 안구가 600명 보사시 장기기증이 620명 사후 시신기증이 430명 생전시 골수기증이 80명 생전시 신장기증이 70명입니다.

생전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 조직적자를 마친 스님 4분 일반인 2분 총 6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는 불사보다도 가슴 뿌듯한 인간발생사를 하고 계신데요. 가장 잊지 못하는 일이라면...

▲지난 2월말 수술을 한 정 근수행보살의 신장 기증의 일입니다. 그분은 정말 보살의 화현과도 같습니다. 손톱이 기다리던 기증을 위해 미국 땅에서 자비롭게 귀국했고 속박료도 본인이 물어가며 생면부지의 젊은이에게 신장을

지만 제가 감당하기에 벅한 일같기도 해 생명공양실천본부 창립 준비 받기 인에도 안 들어가 있었는데 당시 추진위원장인 진철스님과 각현·법타스님, 박공서교수 등이 강력히 권유했어 요. 또 제가 평소 신도들에게도 ‘내가 필요하면 써 먹어라’는 말을 늘 하고 ‘나는 지옥에 태어났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옥에 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서지요. 아무튼 강력한 권유로 본부장이라는 모자를 썼는데, 바로 썼는지 거꾸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실무자들이 정말 보살들입니다. 저보다 그분들이 일을 다 했지요.

음으로 양으로 후원에 준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

—지난 2월 초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세 종교의 장기기증단체 모임을 주선해 팔각한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셨는데요.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시는 건가요.

▲생명을 살리는 데는 내 종교 내 종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생명공양실천본부 가 가장 늦게 출범했기에 경험이 많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장기기증단체들로부터 여러가지 노하우를 배우고 장기기증의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유대를 가질 생각입니다.

—지난 6일 만공스님 124회 탄신기념 대례식과 함께 수덕사에서 ‘근역성보관’의 기공식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도난된 송파사 열정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고, 전국의 사찰들이 성보의 보존과 관리문제로 진전공급하고 있는 차에 맞춰 수덕사에서 전신관 건립이라는 불사가 시작돼 반갑게 느껴집니다.

성보전신관 이름을 ‘근역(勤域)’이라고 정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만공선사께서는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불교의 선종을 크게 진작시킨 대선사일뿐 아니라 민족정신을 각성시키고 외세를 격멸하려 노력한 민족주의의 자입니다. 그분은 근화(勤化) ‘세계일화(世界一花)’를 쓰셨고 항상 강조하셨지요. 무공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 무공화 ‘근’자를 붙여 ‘근역’이라 이름했습니다. 만공스님을 기리고 동시에 우리나라를 영성시키려는 뜻에서입니다. 수덕사의 근역성보관에 소장되는 성보는 불교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의식이 전 국민에게 확산될 때 ‘도난’이나 ‘훼손’이니 하는 말 자체가 없어지겠지요.

—수덕사에는 문화재가 얼마나 됩니까.

▲보물급 부처님을 비롯 향토 문화재 많습니다. 경허스님·만공스님·일엽스님 등이 주석해 있던 곳이라 거문고등 선사자들의 유물이 많습니다. 한 300~400점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보관을 짓는다고 하면 내 놓겠다는 분들도 여럿이지요. 전신관은 올해 끝조와 누각을 완성하고 내년엔 전신관 내부공사를 마쳐 내년 가을쯤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수덕사 ‘근역성보관’ 기공

—지난 3월 스님 98명을 포함 태국 불자 258명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스님께서는 공양까지 마중나갔고 불국사를 안내하는 등 태국불자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지요. 한·태불교협회 창립을 주도하시는 등 태국과의 불교교류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태 불교대회에서 △세계평화 위해 상호 노력 △상호 불교 이해 위해 승려 1인 교류 △신도 교류 △교민들의 넉넉 지위 보장 노력 등을 협정했었습니다. 태국 스님들이 이번에 98분이나 온 것은 한·태 역사상 처음으로, 상호 불교교류를 위해 배반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던 태국은 국민의 95% 불자인 불교국가로 우리나라와는 부처님의 사상만으로도 합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태 불교협회를 이끌면서 양국의 교류를 활성화해 태국에 있는 6천여 교민의 영주권 문제 등 어려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경숙 기자)

나의 수행일기

정수동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익살꾼이다. 그가 어느날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가 가득한 시장으로 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북적거리는 시장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는 대들 장바닥에 주저앉아 대성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그 통곡소리가 얼마나 서럽고 애달랐는지 확자지절 시끄러운 시장 사람들의 통곡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하나 둘씩 통곡하는 정수동을 힐끔힐끔 쳐다본다.

산에서 낀 나뭇잎을 좌관에 떨어놓고 하연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던 아내네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정수동의 서글픈 통곡소리에 자신의 처지가 생각났는지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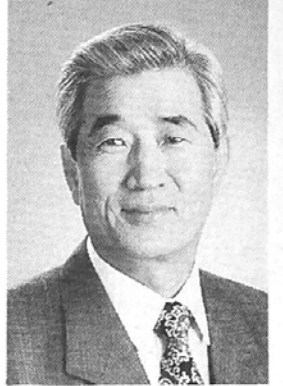
정수동의 통곡소리는 사람들이 보던 말던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더욱 서러워졌다. 이제는 아예 장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며 곡을 한다.

시장사람들은 정수동의 통곡소리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무슨 영문인가 싶어 통곡하는 정수동의 주위로 모였다.

그 중에 인정많은 수다스럽게 생긴 아내네가 용기를 내어 정수동에게 물었다.

“이보소. 누가 죽었소? 아니면 변이라도

서석재 ▲총무처장관 ▲삼



그러나 정수동의 말을 들은 사람들 마음 약한 듯이 발서 그 자리에 툭툭 주저앉아 정수동과 같이 통곡을 한다.

“아이고 이게 웬 말이나. 우리가 죽는다!”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아이고 고향에 있는 처자식을 어쩌나”

정수동과 같이 통곡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시장사람들이 모두 죽는다는 이야기는 삼시간에 퍼졌다. 놀라는 사람, 허둥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좌관을 행하는 사람들로 시장바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와중에 정수동과 같이 통곡하던 사람이 체념한 듯 정수동의 소매를 잡고 물었다.

“이보소. 죽을 때 죽더라도 이유나 알고 죽읍시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속 시원히 말 좀 해주시오”

‘정수동 일화’ 수시로 떠올리며 생활 ‘본것은 보았다’ 자세로 국정에 임해

당했소. 왜 그리 슬피 우는거요. 살다보면 슬픈 일이 한두가지요. 이제 그만 울고 깨어나라 들어봅시다”

아내네의 말에 정수동은 대꾸도 안하고 계속 울기만 한다. 여가지기 사방에서 허물치는 소리가 들린다.

“애고 불쌍해라”

“얼마나 기막힌 일을 당했길래...”

“누가 좀 진정시켜 주지”

“저렇게 울다가 심할라”

“웃웃...” 수군대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통곡하던 정수동은 쪽 속인 고개를 들고 활짝 주위를 돌아보다 나 사람이 제법 많이 모인 것을 확인하고 더욱고 말문을 열었다.

“내가 우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요. 내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렇소”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리 슬피 우는 거요” 다시 울음을 삼킨 정수동이 정색을 하고 말한다.

“이곳에 있는 시장사람들이 모두 죽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었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니 슬퍼도 이게 보통 슬픈 일이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쩔꼬... 아이고”

시장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아니 우리 모두 죽는다니...”

“이런 해괴한 일이 있는가”

“이봐요.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모두 죽다니, 무슨 변이라도 일어났소. 아니면 돌림병이라도 생겼소”



“그래요. 이유나 알고 죽읍시다”

“얼른 말해보소”

정수동은 성화어 못이기는 척 하고 일어서서 말했다.

“일은 무슨 일이고, 변란은 무슨 변란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늙으면 모두 다 죽지 않소. 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할 거요”

정수동은 그리고는 한바탕 필필 웃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이라고 어느 스님한테 들었다. 그러나 종생은 삼라만상을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것이니, 내 것이니 하고 분별을 한다. 그래서 다름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노·병·사는 종생의 진리이다. 그러나 대부분 종생은 자신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착각 속에 산다.

정수동은 그 착각을 깨우쳐 준 보살이다. 내가 하는 수행은 특별한 것이 없다. 다른 신도들처럼 기도나 염불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저 산에 가는 길에 들러 부처님 전에 참배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나는 종생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진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본 것을 보았다고 하고, 보지 않은 것은 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행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음호에)

철사와 풀철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흥법등

흥법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흥법등의 단점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흥법등은 종전의 물체 끼우개식의 결합 방식을 일체형으로 자동화시켜 하나씩 일일이 결합하던 방식을 억구도 방식으로 개선하여 물체 부분의 결합이 필요 없이 상·하 테두리만 결합하면 완성되는 획기적인 제작방법으로 새롭게 탄생.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일일이 풀박이를 하던 등 제작이 ‘한 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팔각등이 1분내에 완성’되며 기존 흥법등의 조립식을 더욱 개선하여 단 한번의 공정으로 보관 개발하여 신속하게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조선시대 연등, 팔각등의 고종과 문헌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장엄함과 전통 계승에 역점.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이 가능한 등

부피가 적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되어 있으며 작금의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 운동에 불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수 천연 필름을 사용하여 재사용과 재처리를 통해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

이외 장점 및 성능의 효율성

‘순수 천연 필름을 사용하여 우천에도 관계 없이 행사 수월 전부터 점등하여 축제 분위기 장엄에 활용’, ‘행사 당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점등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

오직 불심으로 보람받는 흥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호
전화: (032) 613-4027-8 팩스: (032) 665-0965

'95 어버이날 연예인 초청 백남봉

부처님 오신날 기념 어버이날 효도 대잔치가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열립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태국에서 백남봉 디너쇼를 기획하고 저렴한 경비와 알찬 여정으로 어버이를 초대합니다—

태국 5일 ₩ 585,000 4회 한정출발

태국·홍콩 6일 ₩ 695,000 5월 / 6일, 7일, 8일, 9일

상기 요금은 백남봉 디너쇼 포함 금액입니다.

방콕·파타야 5일 일 정

서울→방콕/방콕→파타야/파타야(산호섬)/방콕/서울

홍콩·방콕 6일 일 정

서울→홍콩/홍콩→방콕/방콕→파타야/파타야→방콕/방콕/서울

(주)준항공 여행사 TEL: 712-1113 협찬: 태국정부 관광청